



김완선▶



박남정▶

‘댄싱의 제왕’ 김완선·박남정 돌아온다

이달 중순 나란히 앨범 발표

1980~90년대를 주름잡은 ‘댄싱 퀸’ 김완선과 ‘댄싱 킹’ 박남정이 4월 나란히 컴백한다.

최근 김완선 측에 따르면 김완선은 4월 17일 신곡 ‘잇츠 유’(It's you)와 대표곡들이 담긴 앨범 ‘디 오리지널’(The Original)을 발표한다.

석 장의 CD로 구성된 앨범에는 ‘잇츠 유’를 비롯해 1~6집의 20여 곡,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발표한 음원 10여 곡 등 대략 35곡가량이 수록된다.

김완선 측 관계자는 “‘오리지널’이 보통 원조란 뜻으로 쓰이지만 최조란 의미도 있다”며 “팬, 대중과 무수히 많은 최초의 만남이 있었기에 지난 30년의 세월을 공유했다는 의미에서 붙인 타이틀”이라고 설명했다.

김완선은 4월 15일 오후 7시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 삼성카드홀에서 개최하는 공연에서 신곡 ‘잇츠 유’를 처음 선보일 예정이다. ‘잇츠 유’는 리듬감이 있는 발라드풍의 곡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1월 컴백할 예정이던 박남정은 앨범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일정을 변경해 4월 5일 앨범의 선공개 곡을 발표한다. 프로듀서 돈스파

이크 등과 작업한 이번 앨범은 2004년 정규 7집 ‘어게인 2004’(Again 2004) 이후 13년 만이다.

소속사 NJP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0일 SNS를 통해 박남정의 컴백 이미지를 공개했다. ‘전설이 돌아오다’란 문구가 담긴 사진에서 박남정은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변함없는 동안 외모를 선보였다.

NJ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오랜만의 컴백인 만큼 팬들과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도록 앨범의 사소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다”고 말했다.

두 가수는 시대를 풍미한 원조 언니, 오빠들이란 점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1986년 1집 ‘오늘 밤’으로 데뷔한 김완선은 ‘나 홀로 뜰 앞에서’, ‘리듬 속의 그 춤을’, ‘베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가장무도회’ 등을 히트시키며 1990년대까지 5회 연속 올해의 가수상을 받았다.

‘록의 대부’ 신중현을 비롯해 이장희, 전인권, 윤상, 홍콩 스타 엘린 탐(譚詠麟) 등과 음악 작업을 하며 댄스, 록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였다. 지난해에도 ‘미르’(Mir), ‘셋 미 온 파이어’(Set Me On Fire), ‘유즈 미’(Use Me) 등의 싱글을 발표했고 SBS TV ‘불타는 청춘’을 통해 예능에서도 활약 중이다.

1988년 ‘아, 바람이여’로 데뷔한 박남정은 1989년 2집의 ‘널 그리며’와 ‘사랑의 불시착’이 KBS ‘가요 토크텐’에서 모두 골든컵을 받으며 큰 사랑을 받았다. 특히 ‘널 그리며’의 ‘그, 춤’은 연령대를 아우르며 선풍적인 히트를 했다. /연합뉴스

장범준의 진솔한 고백

다큐 ‘다시, 벚꽃’ 6일 개봉

“아티스트를 다룬 다큐멘터리는 대개 한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거장들을 다룬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작품에 접근하고 싶었어요.”

음악 다큐멘터리 ‘다시, 벚꽃’을 연출한 유해진 감독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작품의 주인공으로 싱어송라이터 장범준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다시, 벚꽃’은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K3’를 통해 이름을 알리고 대중의 사랑과 관심을 한몸에 받게 장범준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 영화다.

이어 “아티스트의 20대는 제한 없는 창작력과 불꽃 같은 열정과 에너지가 폭발하는 시기”라며 “음악적 성장 속도가 엄청난 시기에 아티스트의 고뇌와 시행착오를 담고 싶어서 장범준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벚꽃’은 ‘버스커 버스커’의 리더 장범준이 ‘버스커 버스커’ 활동을 중단한 뒤 자신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영화다. 이번 작품은 유 감독의 다큐 데뷔작이기도 하다.

장범준은 “솔로 2집 앨범의 작업 과정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일상생활이 작품에 담길지 몰랐다”며 “일을 시작할 때 ‘기왕 이렇게 된 거 해보자’는 식으로



장범준

활영에 임했다”고 밝혔다.

다큐에는 화려한 무대를 벗어나 거리 공연을 버스커, 인디 뮤지션들과 고군분투하는 기획자, ‘딸 바보’ 등 장범준의 다양한 모습이 담겼다. 아울러 끊임없이 자신의 음악 세계를 연구하는 진정한 음악가로서의 면모와 음악인으로서 노동의 가치에 대한 고민도 담겼다.

여전히 매년 봄마다 ‘벚꽃 엔딩’이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는 데 대해 장범준은 “애초 차트를 보면 놀랄 때가 많다”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늘 감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영화는 장범준 2집의 제작 과정과 여러 히트곡이 나오게 된 비화를 담고 있다. 아울러 장범준의 미발표곡도 감상할 수 있다. 4월 6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연합뉴스

정재영, OCN ‘듀얼’서 형사로 변신

배우 정재영(사진)이 OCN 드라마 ‘듀얼’의 남자 주인공을 맡는다.

OCN은 정재영이 ‘듀얼’에서 최악의 사건에 휘말리는 형사 장득찬을 연기한다고 31일 밝혔다.

오는 6월3일 첫방송하는 ‘듀얼’은 선악으로 나뉜 두 명의 복제인간과 딸을 납치당한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복제인간 추격 스릴러다. 앞서 김정은이 여주인공인 검사 최조혜 역에 캐스팅됐다.

정재영은 능력 있는 경찰 강력반 팀장이자 평범한 가정이지만, 어느날 복제인간을 만나면서 예측하지 못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정재영의 드라마 출연은 2015년 KBS 2TV ‘어셈블리’ 이후 두번째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여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SBS아침연속극 (이민 소리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중계방송 제69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30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다큐 공감 (재)	00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 (재)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KBC특집토론 (대선후보 유권 변수?)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휴먼터치 인 55 명인 (재)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55 닥터 365
2	45 콘서트 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00 키즈 사이언스6	00 뉴스브리핑
3	35 공간다큐, 사람 45 이윤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재) 55 감성애니 하루 2 (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토크?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커다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황금주머니 (재)	00 토크콘서트 화통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토크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령전문목 남도에 살어리랏다 30 생방송 TV탈로고 토크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일일 특별기획 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완벽한 아내)	00 월화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00 월화드라마 (첫사랑)
11	00 KBS 뉴스라인 40 해외결정드라마 (리벨 웨폰)	1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초인가족 2017
12	30 101세의 프로젝트 (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 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특선 MLB 핫토크	20 나이트라인 50 전국 TOP 10 가요쇼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요술 상자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신문로 아틀라스 <세계의 폭포 황귀수폭포>	09:4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새 통과의례(재)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미지막 미개척지 사막의 변신
06:0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5:20 우주탐험자 셋	21:30 한국기행 -미지막 미개척지 사막의 변신
06:2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소고기 달걀달걀, 고추장 새우볶음)	15:45 코코콩 3	21:50 EBS 다큐 프리덤 (먼지 - 먼지를 훔친 아이)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22:45 또 하나의 우주 길 (신에게 가는 길)
07:30 로보가 폴리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두다다(재)	23:35 까칠남녀
07:45 출동! 슈퍼월드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신다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8:00 당동당 유치원 1~2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15 얼마 깨투리 (신에게 가는 길)	24:30 세계의 드라마 (다운은 예비)
08:30 꼬마버스 타요	12:45 특집다큐멘터리 (재)	17:30 꼬마버스 타요(재)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13:40 까칠남녀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09:15 응급한 소방차 레이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3일(음 3월 7일 庚申)

<p>子</p> <p>48년생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안배를 해야겠다. 60년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중용의 도를 잃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72년생 진보는 없지만 무탈한 하루가 될 것이다. 84년생 파격적인 발전의 행보로 이어지리라. 행운의 숫자 : 79, 21</p>	<p>午</p> <p>42년생 의외의 돈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54년생 다시 한 번 점검 해본다면 새로운 면모가 드러날 것이다. 66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78년생 경우에 따라서 생략될 수 있다. 90년생 평탄하고 순조로운 판세다. 행운의 숫자 : 83, 08</p>
<p>丑</p> <p>49년생 기왕이면 후하게 대하고 여유를 두는 것이 전체적인 국면을 조성하는데 이익이다. 61년생 목전의 이익을 초월하여야만 대사를 도모할 수 있다. 73년생 요체를 중시할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절실히 요청된다. 85년생 길하다. 행운의 숫자 : 32, 55</p>	<p>未</p> <p>43년생 생소한 것을 조심하라. 55년생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니 두루잡지 마라. 67년생 내적인 실속에 신경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79년생 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91년생 변화의 양상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이다. 행운의 숫자 : 92, 51</p>
<p>寅</p> <p>50년생 답답하다라도 가슴에만 묻어 두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62년생 어떠한 형태로든지 폐단으로 작용할 것이니 발본색원하라. 74년생 행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6년생 치우친다면 실득력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4, 35</p>	<p>申</p> <p>44년생 힘껏 달려보면 결과가 만족할만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56년생 바라던 일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판세이다. 68년생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80년생 인식했다면 발생하기 전에 피하는 것이 낫다. 행운의 숫자 : 41, 69</p>
<p>卯</p> <p>51년생 차분하게 공리해보면 목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63년생 지난날에 유쾌한 잡혀 있었던 것이 구체적인 모습을 띠면서 본격적인 형상을 보인다. 75년생 시기에 따라 양상이 달라지겠다. 87년생 최근의 것이 가장 유력하다. 행운의 숫자 : 39, 22</p>	<p>酉</p> <p>45년생 금돈도 안뵈어 있느니라. 57년생 걸로 다 드러나지 않는 법이니 무형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이 절실하다. 69년생 경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니 감안하고 임하라. 81년생 방심하다가는 금역을 면치 못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6, 74</p>
<p>辰</p> <p>52년생 아차 하고 방심하는 순간에 우려하여 왔던 현상이 일어 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64년생 처음부터 접하지 않는 것이 낫다. 76년생 숨어 있는 명정이 노출되겠다. 88년생 표준과 전형에 따르는 것이 무난하리라. 행운의 숫자 : 19, 27</p>	<p>戌</p> <p>46년생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는데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다. 58년생 말하지 않아도 상대 역시 다 알고 있느니라. 70년생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때이다. 82년생 상대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혜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12, 62</p>
<p>巳</p> <p>53년생 경직된 사고는 자기 한계에 될 수도 있다. 65년생 중추적인 부분은 자신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실수를 낳지 않는다. 77년생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 반드시 보충해야 할 시기이다. 89년생 매우 허망한 일이 있을 수다. 행운의 숫자 : 11, 16</p>	<p>亥</p> <p>47년생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빨리 철회할수록 이익이리라. 59년생 앞면 더 뒷면 적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71년생 과정은 매우 힘들게 진행되었지만 결과는 알맞 것이다. 83년생 응용을 잘 해야 쉽게 타결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58, 65</p>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